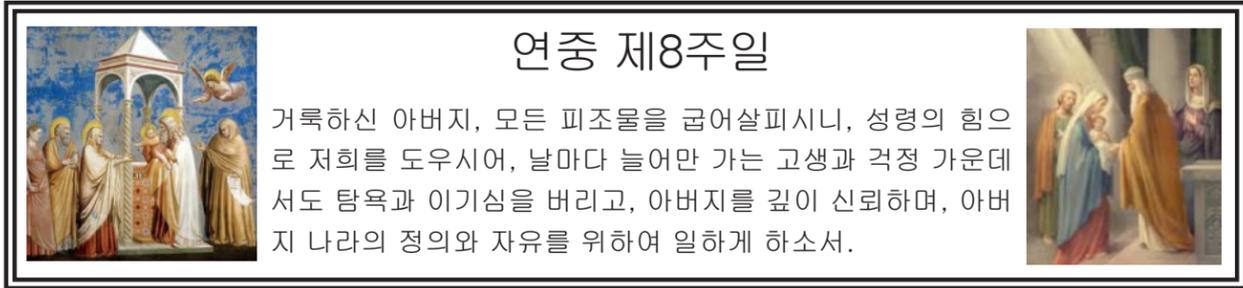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8주일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피조물을 굽어살피시니,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도우시어, 날마다 늘어만 가는 고생과 걱정 가운데서도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며, 아버지 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가정

3월 교황님 기도 지향 : 여성의 권리와 존엄이 모든 문화 속에서 존중받도록 기도합니다.

성 요셉 성월

교회는 해마다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 요셉 성월은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요셉 성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약혼자 마리아를 주님의 뜻에 따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 삶을 바치셨습니다.

사순시기 운동

- 성경 필사 : 시편
- 구역미사 및 판공
- 사순 특강

금주 전례 일정

- 재의 수요일 : 3/5(수) 오후 8시, 십자가의 길과 미사
- 예수 성심 미사 : 3/7(금) 오전 10시
- 성모 신심 미사 : 3/8(토) 오전 10시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구역모임

- 1구역 : 정석원 라파엘 가정, 3/8(토) 저녁 7시
- 2구역 : 홍순익 마르티노 가정, 3/7(금) 저녁 7시
- 3구역 : 안동현 프란치스코 가정, 3/7(금) 저녁 7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20)

건진교리 일정

- 일시 :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 회관
- 교재 : 가톨릭 교회 교리서

기타

- ‘재의 수요일(3/5)’ 이 다가옵니다. 성지가치 회수합니다.
- 캔사스 대교구 사순절 운동으로 돼지 저금통 나누어 드립니다.
- 3/9(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 시작됩니다.
- 다음 주일(3/9), 영화 <Son of God> 단체 관람이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34	512	167/175	4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정수한(베 드 로) 고영방(스테파노)	정예찬(미 카 엘) 고평원(프란치스코)
차주	정준구(파비아노) 차호섭(요 셉)	김준영(요 셉) 차서은(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김정환(요 한)	윤유나(글 라 라)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문석찬(요 셉)	백문주(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김정애, 박희영, 이영민, 임지현
차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한순례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엘리사벳), 김시연(엘리사벳)
차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2/23	75명	288불	1,600불
전영민, 유길수, 김호원, 김도영, 이우석, 현교정, 박동희, 정석원, 정준구(총 9세대)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 제1독서는 감동적인 표현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상기시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웃과 친교를 나누며 개방하는 태도보다는 자신만의 안위를 돌보는 데 급급해 집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이웃에 대한 사랑에 지치지 않기를 청합니다.

성화해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까지 하느님께서 이쳐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마태6,30-31)

하늘의 새마져 굶지 않게 돌보아 주시는 분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물질적인 것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 49,14-15 <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



◎ 내 영혼아 오 직 하느님 안에서 고 이 쉬 - 어 라

○ 내 영혼은 찻찻하다. 오직 하느님 안에서, 임에게서 내 구원이 오나니, 임만이 나의 바위, 내 구원, 내 성체시기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

○ 내 영혼아 고이 쉬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 임에게서 내 구원이 오나니, 임만이 나의 바위, 내 구원, 내 성체시기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

○ 내 구원에, 내 영광이 하느님께 있나니, 하느님께서는 굳센 바위 내 피난처시다. 백성들이 너희 항상 주님께 바라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 열어놓아라. ◎

제 2 독 서 : 1코린 4,1-5 < 주님께서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복 음 : 마태 6,24-34 <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

쉐 마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사제들은 주교님의 명을 받아서 정해진 임지로 가게 됩니다. 전임 신부님과 인수인계를 하고, 새로운 곳에서 사목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면서 쉬는 교우들을 위한 방안을 찾거나, 지역의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신앙 안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30~40대 직장인들에게 신앙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스스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면서 가끔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본당에 부채는 없는지, 주일헌금과 교무금은 얼마나 되는지, 신자들의 숫자는 많은지, 아파트는 얼마나 되는지, 사는 곳은 어떤 동네인지 살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저들의 꽃을 보아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그것들도 다 하느님께서는 살피시고 먹이신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갈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라.”

일본에는 ‘코이’라고 불리는 관상용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와는 다르게 자기가 사는 장소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그마한 어항에 살 때에는 5~8cm 크기로, 조금 큰 수족관에 살 때에는 15~25cm 크기로 부쩍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다란 연못이나 강물에서 살게 되면 그 크기가 90~120cm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맞춰 사는 ‘코이’ 물고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내 환경에 맞게 내 몸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내 마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나 자신 역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마음의 크기가 큰 사람은 어떠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스토아학파인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

지요. “인간의 가치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로 결정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자기 마음의 크기를 더욱더 키워서 세상에 주님을 알리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그마한 틀 속에 가두어놓고만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을 앞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준비했고, 여자는 그 아파트에서 살아갈 살림살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여자는 결혼 비용으로 준비한 것들을 아버지를 위해서 써야 했고,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아파트가 없습니다.” 둘은 할 수 없이 작은 월세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병세가 호전됐고, 사업도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여자는 다시 살림살이를 마련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파트가 없는 것이 생각났고,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불평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말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빚은 남자가 아파트를 팔아서 갚았고, 남자의 월급에서 아버지의 병원비를 지급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도움을 준 남자가 생각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고, 목숨마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마중물

100년 기업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은 때가 되면 노화되고 소멸되어 갑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도 때가 되면 마모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태양도 수명이 있고 지구도 수명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 미국 포천(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1/3이 13년이 채 못 되어서 사라져갔다고 합니다. 유럽 스트라틱 컨설팅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역사가 비교적 긴 유럽과 일본에도 기업의 평균 수명은 13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이치가 쓴 [백년 기업]에 의하면 때로는 100년 이상 꾸준히 성장하면서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GE가 1878년 에디슨 전기회사로 출발하여 올해로 127세를 맞이했으며, 3M이 올해로 102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포드(Ford)와 할리 데이비슨은 각각 2004년, 2003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음으로써 이 두 기업도 세계적 장수(長壽)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100년 기업 클럽’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장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의 대표적인 연구서인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는 최근 25년 동안 초우량기업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장기 번영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많은 위기와 역경을 헤치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우량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을 철저하게 가르쳐라, 기업구조를 유연하게 유지하라,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시켜라. 존경받는 기업으로 남아라.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추진하라. 경영인재를 육성하라. 지속적인 변혁으로 성과를 창출하라.”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버티려면 나무가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기업도 조직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하듯 조직 구성원이 헌신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개 기업도 이럴진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84. 하느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합니까?

하느님의 백성은 복음 선포와 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도 참여한다.” 이는 특히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그 신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평신도 이견 성직자이건 간에 백성 전체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85항 참조).

85. 하느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합니까?

하느님의 백성은 극기와 자선, 그리고 봉사와 거룩한 생활로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을 당신께 이끄심으로써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왕이시며 우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태 20,2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교회헌장, 36항). 특히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습을 알아본다.”(교회헌장, 8항).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는 이 소명에 따라 삶으로써 ‘왕의 품위’를 실현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86항 참조).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